

민주 대선 경선후보 8인 광주 연설회

소외된 호남 위해... 무너진 경제 위해... "내가 꼭 필요"

탕탕평평 인권국가



5 김정길

민주당에서 7명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하면, 그 중 한 명은 박근혜 후보를 꺾을 줄 알았다. 그런데 박근혜, 안철수에게 뒤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누가 되어도 안철수에게 뒤질 것이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 나를 대선 후보로 뛰어뜬게 했다.

30년 동안 민주당 당적을 바꾸지 않았다. 부산에서 7번 민주당 간관

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많은 정치인이 지역구를 바꾸고 정당을 바꿀 때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도 바꾸지 않고, 당도 떠나지 않았다. 많은 정치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떠날 때 불이익을 당해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버텼다.

광주와 전남에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광주에서 1년을 살았고, 처가가 고희이다. 남다른 인연이 있다.

저에게 기회를 준 다면 소외된 호남을 위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인사·예산을 더 배정해서 영남과 호남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영·호남 화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또한, 한미 FTA를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7명의 후보들은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이 박근혜 후보와 같다. 재협상을 한다고 한다. 경제주권이 침해되고, 서민들에게 손해되고, 재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왜 민주당 후보들이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 FTA를 폐기해 노동자·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

내게 힘이 되는 평등국가



6 김두관

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때 내 불의 질책을 허물어준 것 같다고 했다. 경상도에서 김대중 당 한다고 욕을 먹어도 똑심 하나로 버텼다. 이제 김대중 선생님의 허물어진 절반을 반드시 찾아주겠다.

참여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민주당의 분당에 호남 지지자들은 크게 분노했다. 먼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이제 뜨겁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목표의 눈물과 전라도의 설움을 잘 알고 있다.

무등산의 꿈을 잘 알고 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호남이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 호남이 당당하고 어깨를 펴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재벌과 기득권과 타협을 한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지지율 1등이라고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번이 없으면 감동이 없다. 뜨거운 열정을 지닌 김두관과 함께 이변을 만들어야 한다. 김두관 태풍을 만들어 박근혜를 꺾어야 한다.

이제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무지개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김두관이 만드는 나라는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자치다. 울산을 뛰어넘는 자동차 신도시를 광주에 만들겠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첨단 농업으로 호남 농업을 살리겠다. 경상도에 민주당 씨를 뿌리고 지역주의에 당당하게 맞선 김두관이나, 노무현 정신만을 갖고 있는 문제인인지 선택해달라.

국민 햇병 고쳐드리겠다



7 김영환

저는 '전두환의 광주 시민 살육작전'이라는 유인물을 인쇄, 광주의 참상과 진실을 알리고자 서울 구석구석에 뿌렸다. 이 일로 현상수배자가 됐고 그후 '광주' '5월'을 잊은 적이 없다.

어제(24일)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한 것도 1980년 5월의 광주는, 지금도 그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고통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사자까지 내보이며 자랑하기에 앞서, 일복무너 공수 특전사의 상처, 그 트라우마, 고통만을 목청 높여 말해야 하는가? 광주시민들은 지금도 잠 못 이루고 피눈물을 삼킨다. 그 고통, 그 참담한 유힬증을 먼저 기억하고, 보듬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제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지금은 문화의 시대, 콘텐츠의 시대, IT플랫폼의 시대, 상상력과 창조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성장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융합하는 '트리플 악셀'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 융합해야 한다.

저는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냈고, 정보통신을 잘 알고, 문화예술을 통섭하고,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와 원자력의 안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해 왔다. 저 김영환은 해낼 수 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8 정세균

정권교체를 이룩하려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넘어셔야 한다. 두 얼굴의 소유자, 불투명 독선이 마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다.

과연 누가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인기와 이미지가 강한 후보가 아니라 콘텐츠가 강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풍부한 경험과 경제를 잘 알고 이끌 줄 아는 후보여야 한다.

17년간 실물경제를 담당했고, 국회와 정부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능력이 검증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서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또한, 민주당 후보는 정통성을 갖춰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세균의 리더십은 인내와 결단의 리더십이다. 이 땅의 정의와 공평,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출마했다. 반드시 대통령 후보가 돼 박근혜를 압도적으로 이겨 당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려줄 것이다.

빛 없는 사회, 국민이 편한 사회를 만들겠다. 비정상 경제를 정상 경제로 되돌리고, 재벌개혁·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실현해 비정규직,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망을 구축하겠다. 망국적 사교육도 없애겠다.

내일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 광주는 위함받을 때마다 기적을 창출했다. 광주시민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우리는 승리했다. 팍팍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정세균이 함께하겠다.

박준영 "실패한 참여정부 사람들 필패" 문재인 "성공한 정부다"

■ 참여정부 책임론

박준영 후보는 24일 광주 합동토론회에서 "참여정부 5년 동안 국민은 피곤했다. 대북송금특검, 김대중 대통령은 무너지는 것 같았고 울먹었다. 그리고 민주당을 두 당으로 나눴다"고 참여정부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참여정부 심판론으로 선거가 흐르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필패론을 주장했다.

손학규 후보도 이날 합동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민생 실패가 530만 표라는 역대 최고 차이로 민주당을 쓰러뜨렸다. 국민은 바로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세력에 등을 돌린 것이다"며 "그(참여정부) 세력은 제대로 된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성공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을 잘했다고 말한다. 정권을 빼앗긴 것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참여정부 출신인 김두관 후보는 "참여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은 잘못됐다. 민주당의 분당과 인사차별이 호남 지지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저 김두관이 먼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이날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은 지적을 피했다. 다만, 그는 지난 23일 방송토론회에서 "모든 면에서 큰 성취가 있었던 성공한 정부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손학규 "영남효과 안 통할 것" 김두관 "영남패권 실체는 TK"

■ 영남패권주의

이날 연설회에서는 지역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영남패권주의에 대한 공격은 자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쟁점은 이미 최대 핫이슈다.

박준영 후보는 지난 24일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녁'에 출연, "영남후보론이 필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학학"이라며 "다른 일정한 국민을 무시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호남'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찍었느냐"라고 했고, 문재인씨는 '참여정부는 부산정권'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후보는 지난 3일 민생경제 토론회에서 "아래에서 '2002년 영남효과'를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광주·전남이 참여정부를 만들어냈다. 참여정부 내내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끝까지 지지해줬다"며 공격을 피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누가 노무현 정신을 팔고 있는가. 경상도에 민주당 씨를 뿌리고 지역주의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이라며 문 후보와는 다른 영남후보임을 내세웠다. 그는 "영남패권주의의 핵심은 부산·경남이 아닌 대구·경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현대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은 부동산 신창동 빌딩매매 -대 지 : 630평 -연건평 : 460평 -보증금 3억5500만원/월1600만원

대인동심일부동산 호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